**올해는 이렇게 삽시다**

**(고후 13:9-13)**

**1/9/2022 주일 말씀**

 먼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일흔 다섯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소명을 부여합니다.

 창세기 12장 1 – 4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 뿐이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열흘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한달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실만도 한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겪었던 고 안이숙씨의 찬송에도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루 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속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꼭 배워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주세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주시지 않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날 그 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살면서 너무 거창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 2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였습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끊임없이 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하면 전도현장을 늘 연상했습니다. 전도 현장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음모를 못 깨닫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아니면 이 세상을 무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현실을 못 읽어가면 무지한 생활 속에서 계속 삶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작년에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너무 모르고 무지하다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안 믿어요 – 사탄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인데 사탄의 실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을 못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문제 –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종교, 교회까지도 – 사탄의 세력들인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장악했으며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속박해오고 있는 현실을 못 읽으시면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 복음생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입으로 말만 하는 립서비스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뭔가 좀 다른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22년, 새로운 4차원의 세계가 우리 앞에 와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 것도 안 심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심어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아무 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로마서 13장 12 – 14 절에 **“밤이 깊고 나지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투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을 숭배하는 카발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카발) 많이 속아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록펠러 같은 사람의 신앙을 따라 갈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였는지 모릅니다.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일루미나티들은 자기들끼리 손 잡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속이고 뒤로는 다 나쁜 짓 하고 세상을 사탄의 소굴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람 뿐일까요? 카네기, 테레사 수녀 – 인도에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았다고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좀 눈을 크게 뜨고 볼 것을 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아닌 것을 기다고 우기겠습니까? 왜 음모론이라는 것을 자꾸 말 할까요? 음모론이 음모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뉴스를 한 번 들어보세요. 메이져 방송들이 뉴우스가 똑같아요. 어떤 때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위에서 거짓 방송을 내려주는데로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 가슴에 담고 1년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내용들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을 담고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텅빈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쟁을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 내용으로 삼고 1년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려지지 않는지 반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는 있었지만 무지로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세계는 복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 해 주신 세계는 다릅니다. 깨달을 때 복음의 세계는 더 빠른 시일에 우리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2022년 한 해가 뭔가 모르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